

지역 매 아리

정읍새일센터, 취업박람회 개최

정읍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정읍새일센터)는 이달 28일 정읍고용복지+센터·정읍청년경제연구소와 손을 잡고 정읍체육관에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주)리빙, (주)에스앤피, (주)산호윙오리, 정읍시립요양원, (유)신우S&F, 에스엠전사전북지사, (주)원흥푸드 등 10여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하며, 모두 30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현장에서 서류전형부터 면접까지 원스톱으로 구인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NI농협, 삼오레, 매일유업, (주)팜덕에서는 구인홍보관을 운영해 기업홍보를 펼치며, 구직자들의 관심과 취·창업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정읍새일센터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구직자들의 취업활동 지원을 위해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지원관, 직업체험관, 이력서 사진촬영관 등을 운영하며, 취업인식 전환교육과 직업교육훈련 수요 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정읍고용복지+센터에서는 직업선호도 검사관과 취업성공패키지 홍보관 등을 출장 운영하는 등 구직자 맞춤형실질 활동을 펼치게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농업기술센터 겨울철 과원관리 당부

정읍시농업기술센터(소장 문채원, 이하 농업기술센터)는 내년도 좋은 과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겨울철 과원관리를 당부했다.

문 소장은 올해 과수는 봄철의 저온피해에 의한 열매숙기 지연과 여름철 폭염에 따른 야간호흡 증가 등으로 과수의 저장양분이 부족 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도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해서는 다음사항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일반적으로 밑거름은 낙엽기부터 휴면기인 11월~2월에 주어야 하나, 내년 과수의 뿌리활동이 시작하는 2월중에 이용될 수 있도록 11월~12월 중에 주며, 떨어진 낙엽은 내년도 병해충의 잠복처가 될 수 있으니 긁어모아 매몰 및 소각해주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겨울철 토양의 건조를 막기 위해 수확 후부터 땅이 얼기 전까지 충분히 관수를 해주고, 월동 중에 동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줄기에 수성페인트를 칠하거나 짚, 신문지, 반사필름 등 보온재로 지면으로부터 1m 이상 피복해주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해 과수의 관리에 따라 내년도 과실이 결정되므로 지금부터 과원관리를 철저히 하여 좋은 과실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고, 사용했던 농기자재도 정리하여 내년도 영농에 대비해야 한다"고 과수농가에게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세계잼버리 성공방안 모색

아시아·태평양 해외 스카우트, 직소천 등 영외과정활동장 찾아 발전방안 논의

부안군은 2023년 제25회 부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성공개최 방안 마련을 위해 아시아·태평양 해외 스카우트 20여명이 22일 부안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부안을 방문한 해외 스카우트 대원들은 세계연맹 아·태지역 사무처 직원들로 18일부터 24일까지 전주에서 스카우트 지도자 양성 과정과 역량개발을 위해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

중인 가운데 22일에 실제 잼버리가 열리는 부안을 방문했다.

해외 스카우트 대원들은 잼버리시절에 실제 수상 및 해양과정활동이 가능한 직소천, 변산해수욕장을 방문해 시설에 대한 발전방안에 대해 아이디어를 모았으며, 그 밖에도 내소사 다도체험, 청자박물관 청자만들기를 통해 세계잼버리 과정활동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한국스카우트연맹 관계자는 "세계

잼버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영외과정활동 장소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적격지가 바로 직소천과 변산해수욕장이다.

앞으로 세계잼버리에 직접 참여하는 국내·외 스카우트인들이 자주 부안을 찾아 직소천과 변산해수욕장 개발에 대한 많은 의견을 바탕으로 부안 세계잼버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지난해 열린 정읍시 신규 공무원 역량강화교육 단체사진.

정읍의 미래를 책임질 신규 공무원 역량강화교육

바람직한 공직 마인드 향상 · 시정 바로알기 · 6급 간부공무원과의 멘토-멘티도 진행

정읍시가 역량강화교육을 통해 새내기 공무원들의 업무 능력과 공직 마인드 향상에 온 힘을 쏟았다. 시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올해 새로 임용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직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함께 소성 '꽃두레행복마을'에서 6급 간부공무원과의 멘토-멘티 결연식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청렴과 소통 등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마인드 향상을 꾀하는 물론 정읍시정 바로알기 등을 통해 조직이 원하는 인재상을 구현하고 친절하고 수준 있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직무교육과 함께 현장학습도 진행됐다. 신규공무원들은 신정동 3대 국책연구소 견학, 동학농민혁명기념관과 전봉준고택·무성서원 등의 역사문화 유적지 탐방, 그리고 정읍시립박물관과 시립미술관 등 정읍의 주요 명소와 시설

을 둘러보며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교육에서는 실국장장실과 실과장이 각 부서의 현안사업을 소개하고 선배 공직자의 입장에서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권한에 대해 조언했다. 특히 21일에는 6급 간부공무원과 신규 공무원과의 1대1 멘토-멘티 결연도 진행됐다.

멘토인 6급 간부공무원들은 앞으로 멘티인 신규 공직자들에게 업무적인 조언이나 지원은 물론 지속적으로 일상적인 관계를 이어가며 공직 적응을 돕게 된다. 새내기 공무원인 이강산(도시재생과, 토목)씨는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봉사정신, 공직기치, 및 민원인 응대 요령 등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선배님들과의 소통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좋았고, 동기 간에도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교육 일정에 참석한 유진섭 시장은 "이번 교육이 공직에 첫 발을 내딛던 여러분들이 정읍의 미래를 책임질 공직자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다지는 계기가 되고 책임감 있고 친절한 행정 의지를 높여 시민들에 감동 줄 수 있는 '감동행정' 실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의 삶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종합행정기관이다"며 "소득 양극화, 경쟁에서 뒤처진 이들이 소외받는 등의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해나는데 있어서도 능동적인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8월 10일자로 임용받은 신규 공무원은 모두 66명이다. 이들은 현재 분청과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근무 중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우량기업 유치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정읍시·라이프로, 첨단과학산업단지 투자협약 체결

정읍시는 22일에 정읍시청에서 유진섭 정읍시장, (주)라이프로 최기현 대표이사과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첨단과학산업단지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주)라이프로는 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2019년까지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1만 2,913.2㎡(3,906평) 부지에 63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2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주)라이프로는 충북 청주에서 본사를 운영 중으로 정읍 공장을 신설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의 기술을 이전받아 천연 한방재료를 원료로 하는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을 생산할 예정이다. 또한 화장품 제조업의 성공을 발판으로 하여, 추후 건강 기능식품 제조 등 여러 방향으로 사

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유진섭 정읍시장은 "첨단과학산업단지에 투자를 결정해 주신 (주)라이프로에 감사드린다"며, "첨단과학산업단지의 기업들이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항상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행정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정읍시를 만들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3대 국책연구소 및 LH,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등과 연계하여 투자 유치를 위한 협업 체계 구축 등 첨단과학산업단지 잔여부지 분야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우량기업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도 민방위 경진대회 출정식 가저

대표선수단 발족 · 감독 선임 위촉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라' 2018년 전라북도 민방위 경진대회에 참가 할 시 대표선수단을 발족하고 출정식을 가졌다.

시는 시 대표선수단 단장에 여성민방위대 이선심 대장을 선임하고, 대표팀 감독에 부문별로 심포세생윤 이은 씨, 응급처치 김경옥 씨, 훈련지도 이윤희 씨를 위촉했다.

선수단은 민방위대에 지원한 여성민방위대원 중 훈련 성적이 우수한 우지향 씨, 주인선 씨, 김춘화 씨, 김은미 씨 등 4명의 참가선수와 참가지원팀을 포함한 10여명으로 구성됐다.

관련해서는 금년 대회 우승을 목표로 시청 5층 대회의실에 마련된 특설

훈련장에서 지난 1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강화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시 여성민방위대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대회우승과 함께 지난해 3위를 차지하는 등 전라북도 대회에서 3년 연속 입상하였으며, 2017년에는 전국대회에 전라북도 대표로 참가하여 3위로 입상한 바 있다.

전라북도과 행정안전부는 민방위사태와 재난에 대비하여 매년 심포세생윤과 응급처치 등 민방위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 전라북도 대회는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간 부안군 대명리조트에서 열린다.

유진섭 시장은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훈련에서 훌륭한 여성민방위대원들의 땀방울은 유사시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값진 선물이 될 것이다"고 격려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농기센터, 농촌자원 융복합 활성화 사업부문 우수상

고창군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에서 개최한 '2018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회'에서 농촌자원 융복합 활성화 사업부문에서 우수 기관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농촌자원 융복합 활성화 사업부문 평가는 지역의 특산물과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기술을 접목하고,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성과를 널리 확산시키기 위하여 추진됐다.

고창군농업기술센터는 그간 지역농업특성과 공모사업을 다수 선정 받아 잡곡류·기능성특수미(하이브리드)·메

주곡·팥 등의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하고, 다양한 기능성 가공제품을 개발·상품화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왔다.

특히 최근 2년간 추진한 '팥콩 특화단지 육성 및 팥콩(새싹)이용 기능성 가공제품 개발·상품화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상품종 팥콩을 도입하여 팥콩의 생산성을 기존팥콩 보다30% 이상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다양한 가공제품 상품화로 팥콩의 부가가치를 2배로 높이고 체험 상품 개발과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창=김영식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The ad features a large image of a bottle of wine and a smaller image of a gift set.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It also lists various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and quantities.